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지 원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양상블을 위한
Carl Reinecke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Undine』 작품 분석 및 이해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김 소 희

양상블을 위한
Carl Reinecke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Undine』 작품 분석 및 이해

이 지 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김 소 희

인 준 서

김소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홍 청 의 인

심사위원 이 지 원 인

심사위원 송 영 규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Carl Reinecke(1824~1910)의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Undine』에 관한 연구이다.

이 곡은 1885년에 Carl Reinecke에 의해 씌여진 것으로 전체 4악장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표제음악 작품이다.

서정적이면서도 간결한 선율이 돋보이는 이 곡은 플루트와 피아노의 앙상블이 매우 돋보이며 현재까지도 많은 연주자들에 의해 연주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Undine』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와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다.

다음으로 본론에서는 먼저 Reinecke가 살았던 19세기의 여러 음악적 시대에 대해 살펴보고, 작곡가 Reinecke의 생애와 작품경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후 각 악장을 분석함으로써, 이 곡에 나타난 여러 음악적 특징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특히 피아노 연주자의 관점에서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음악적 요소를 분석하여, 작품 속에 드러난 피아노와 플루트의 음악적 관계를 파악해 본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이해한 이 작품의 음악적 특징을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곡에서의 피아노 파트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를 논의 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 짓는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II. 이론적 배경 | |
| 1. 19세기의 음악적 배경 | 4 |
| 2. Carl Reinecke 의 음악 세계 | |
| 가) Carl Reinecke 의 생애 | 7 |
| 나) Carl Reinecke 의 작품 | 8 |
| III. 작품 분석 | |
| 1. 작품 배경 - 푸케의 창작 동화 소설 『Undine』의 이해 | 11 |
| 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작품 분석 | |
| 가) 제1악장 | 14 |
| 나) 제2악장 | 35 |
| 다) 제3악장 | 45 |
| 라) 제4악장 | 54 |
| 3. Sonata 『Undine』 속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 정리 | 73 |
| IV. 결론 | 82 |
| 참고문헌 | |
| ABSTRACT | |

악 보 목 차

| | |
|--|----|
| 악보1)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8 | 15 |
| 악보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9-16 | 16 |
| 악보3)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7-20 | 17 |
| 악보4)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1-29 | 18 |
| 악보5)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9-33 | 19 |
| 악보6)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40-50 | 20 |
| 악보7)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50-61 | 22 |
| 악보8)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61-80 | 23 |
| 악보9)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81-88 | 24 |
| 악보10)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08-113 | 25 |
| 악보11)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21-130 | 26 |
| 악보1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35-145 | 27 |
| 악보13)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68-176 | 29 |
| 악보14)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77-185 | 30 |
| 악보15)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13-230 | 32 |
| 악보16)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42-252 | 33 |
| 악보17)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52-267 | 34 |
| 악보18)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1-9 | 37 |
| 악보19)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13-23 | 38 |
| 악보20)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23-32 | 39 |
| 악보21)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33-49 | 41 |
| 악보2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95-97 | 42 |
| 악보23)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98-103 | 43 |
| 악보24)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114-119 | 44 |
| 악보25)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1-8 | 47 |
| 악보26)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9-12 | 48 |
| 악보27)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17-21 | 49 |
| 악보28)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32-35 | 50 |
| 악보29)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36-43 | 51 |
| 악보30)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54-67 | 53 |
| 악보31)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11 | 55 |
| 악보3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6-25 | 56 |
| 악보33)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5-36 | 57 |

| | | | | |
|-------|---|------------|-------|----|
| 악보34)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 mm.53-61 | | 58 |
| 악보35)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 mm.90-97 | | 59 |
| 악보36)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 mm.111-114 | | 60 |
| 악보37)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 mm.115-130 | | 62 |
| 악보38)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 mm.135-148 | | 64 |
| 악보39)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 mm.187-199 | | 66 |
| 악보40)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 mm.211-230 | | 68 |
| 악보41)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 mm.263-278 | | 70 |
| 악보42)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 mm.279-296 | | 71 |
| 악보43)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 mm.310-317 | | 72 |
| 악보44)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 mm.1-4 | | 73 |
| 악보45)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4악장 | mm.221-224 | | 74 |
| 악보46)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 mm.15-16 | | 74 |
| 악보47)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 mm.54-57 | | 75 |
| 악보48)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 mm.40-49 | | 77 |
| 악보49)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4악장 | mm.1-8 | | 78 |
| 악보50)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 mm.5-8 | | 78 |
| 악보51)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 mm.98-101 | | 79 |
| 악보52)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 mm.116-117 | | 79 |
| 악보53)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 mm.21-28 | | 80 |
| 악보54) |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 mm.9-11 | | 81 |

표 목 차

| | |
|---|----|
| 표1) Carl Reinecke 의 작품 요약..... | 9 |
| 표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의 전체 구성 | 13 |
| 표3)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의 1악장 형식 구조 | 14 |
| 표4)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의 2악장 형식 구조..... | 35 |
| 표5)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의 3악장 형식 구조..... | 45 |
| 표6)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의 4악장 형식 구조 | 54 |

I. 서론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활동하던 작곡가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과 개성의 표현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고전적인 형식을 탈피하고, 풍부한 음향과 다양한 색채를 추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문학, 회화 등을 음악과 결합시켜서 "교향시", "표제 교향곡", "연주용 소곡" 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표제음악(Program Music)을 작곡하였다.

Carl Reinecke(1824~1910)는 이러한 음악사적 배경 속에서 활동하며 낭만주의 시대를 거처간 독일의 대표 작곡가로 꼽히고 있다. 그는 생전에 피아노와 플루트, 하프 등 다양한 악기를 위한 작품을 많이 남겼으며, 그 중 <Flute Concerto D Major Op.283>과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Undine』 - 이하 Sonata 『Undine』로 줄여서 지칭할 것이다 - 는 아직까지도 연주자들에 의해 많이 연주되는 작품이다.

본 논문의 저자는 플루트 연주자들과 앙상블을 많이 하게 되는 이 두 작품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피아니스트이자 반주자로서 Sonata 『Undine』에서의 피아노 파트의 역할과 플루트와의 앙상블을 위한 효과적인 연주방법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의 작품 Sonata 『Undine』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 작품만의 특징과 작곡가의 작곡 의도 등을 파악해 보았다.

Sonata 『Undine』는 낭만주의 시대 유행했던 표제음악 작품의 하나로 Reinecke가 푸케(F.M Fouqué, 1777~1843)의 소설 "Undine"에서 영감을 받고 1885년에 작곡한 곡이다. 푸케는 독일 출신의 시인이자 소설가로서, 소설 "Undine"는 사랑과 복수를 소재로 한 유명한 창작동화이다.

Sonata 『Undine』는 그 모티브가 된 소설 "Undine"에 대한 풍부한 묘사로 후기 낭만주의 시대를 거쳤던 Reinecke의 음악적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

이라 볼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Sonata 『Undine』의 악곡분석을 통해 이 곡에서 Reinecke가 사용했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곡 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Reinecke의 생애와 그가 살았던 19세기의 음악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후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Sonata 『Undine』의 모티브가 된 푸케의 소설 "Undine"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Sonata 『Undine』를 다뤘던 기존의 연구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Sonata 『Undine』를 분석해보았다. 기존에 Sonata 『Undine』를 다룬 연구를 찾아보면 플루트 악기의 선율에 치중하여 악곡 분석을 진행한 경우를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많은 경우 Sonata 『Undine』가 주 선율 악기인 플루트와 반주를 담당하는 피아노의 관계로 형성되어 작곡되었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자가 Sonata 『Undine』의 악곡을 볼 때, 플루트와 피아노는 서로 선율이 얽혀 있었고, 주 선율악기와 반주 역할을 하는 피아노 파트가 있다고 보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곤 했다. 따라서 Reinecke가 처음 Sonata 『Undine』를 작곡했을 당시에는 플루트와 피아노의 앙상블을 위한 곡으로 이 곡을 작곡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곡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이 곡에서 피아노는 단순히 플루트 반주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악기가 아니라, 플루트와의 앙상블을 위해 조화롭게 사용되었으며, 바로 이 점을 전제로 곡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Reinecke의 작곡 의도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악곡 분석을 통해 플루트와 소나타 두 악기의 음악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해서 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피아노 연주자가 더 효과적인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 연구를 통해서 Sonata 『Undine』의 작곡 당시, Reinecke가 작품 속에

표현하고자 하였던 작곡 의도를 잘 이해하고 피아노 연주자가 플루트와의 앙상블을 위해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Carl, Reinecke. Sonata 『Undine』 Opus 167 for flute and piano (International Music Company) 악보를 사용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19세기의 음악적 배경

19세기 음악을 주도했던 기본 이념은 낭만주의(Romanticism)로 알려져 있다. 시대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인 19세기 초반에서 시작하여 20세기 초에 걸쳐 음악의 흐름을 주도했던 낭만주의는 질서, 균형 등 형식적인 틀을 중시하던 고전주의와 달리 개인의 감정과 개성의 표현을 중시하며, 자유롭고 풍부한 선율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¹⁾ 기본적으로 한계를 무시하고,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성향을 가진 낭만주의가 관례적인 형식의 틀을 탈피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²⁾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 환경은 이전 시대 작곡가들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과거의 작곡가들은 궁정 등의 후원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신분을 보장받았다. 그에 비해 낭만주의 시대에는 작곡가들에 대한 개인적인 후원 등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다양한 연주회를 통해 청중을 흡수하기 위한 작곡가들의 노력이 이어졌다.³⁾ 이는 경제력을 갖춘 중산 계급이 점차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고 또한 음악회의 청중으로 등장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가운데 음악가들은 과거와 달리 자유롭고 독립된 신분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악기 개량이 많이 이루어진 시기로, 피아노의 경우 새로운 음향이 발견되었고, 관현악에서는 새로운 악기들이 추가되었다. 여기에 옛 악기는 더 낭랑하고 유연한 소리를 내도록 개조되었다.⁴⁾ 특히 합주에서는 새

1) 김혜정, **서양음악의 흐름**, 서울:도솔, 2003, p.210

2) 김문자의,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심설당, 2002, p517

3) Donald J.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1, p.790

4) Donald J.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1, p.797

로운 색채 효과를 내기 위해 새로운 악기 구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은 시나 문학 작품 같은 음악 외적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 시대 주요 작곡가들은 다양한 예술 매체에 고루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음악가인 동시에 비평가이며 작가이기도 했다. 이 시대 작곡가들은 음악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깊이 있고 또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다고 믿었다.⁵⁾ 따라서 작곡가들은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인간 감정들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19세기 들어 문학과 음악이 결합된 표제음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세기 표제 음악의 시작은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전원 교향곡”을 들 수 있다.⁶⁾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베를리오즈(Louis Hector Berlioz, 1803~1869)의 “환상 교향곡”을 그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 곡이 마치 오페라 음악처럼 묘사적이며 단두대의 행진, 실연 등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이야기를 음악으로 발전시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한여름밤의 꿈”의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1809~1847), “어린이 정경”의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 “전주곡”, “오프페우스” 등을 작곡했던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그리고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달빛”으로 유명한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돈주앙”의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46~1949)와 같은 수많은 작곡가들이 표제음악에 정열을 쏟아 부었다.⁷⁾

그 결과 교향시, 표제 교향곡, 음악회용 서곡이나 짧은 피아노 소곡 등 다양

5) 김문자의,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심설당, 2002, p526

6) 김문자의,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심설당, 2002, p567

7) Donald J.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1, p.789

한 형태의 표제 음악이 탄생했으며, 19세기를 대표하는 음악 작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낭만파 음악은 작품의 개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주관적인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19세기 전기에 비해 대규모 악곡이 자주 작곡되었으며 가극, 화성법, 관현악법이 급속하게 발달하였다.

반음계적인 화성의 진행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선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악기의 편성이 확대되어 새로운 음색의 효과가 커짐과 동시에 조성의 변화도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2. Carl Reinecke 의 음악 세계

가) Carl Reinecke 의 생애

Carl Reinecke(Carl Heinrich Carsten Reinecke, 1824.6.23 ~ 1910.3.10)는 독일 함부르크(Hamburg) 근처 알토나(Altona) 출신의 음악가이다.

Reinecke의 최초의 음악 교육은 당시 음악이론가였던 아버지 Rudolf Reinecke(1795~1883)로부터 시작되었다. 7살 때 작곡 공부를 시작했으며, 12살이 되던 해에 피아니스트로 데뷔하게 된다. Reinecke는 1843년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연주여행을 하였고, 라이프찌히에서 멘델스존, 슈만으로부터 3년간을 사사하였다. 그 이후 다시 덴마크로 돌아가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8세의 궁정피아니스트로 재직하게 된다.⁸⁾

1851년에는 쾰른(Cologne)으로 이주하여 힐러스 콘서바토리(Hillers conservatory)에서 피아노와 대위법 지도를 담당하였고, 1854년부터 1859년까지는 바르멘(Barmen)에서 음악 감독과 지휘자를 역임하며 도시전체의 음악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1860년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Reinecke는 다시 라이프찌히로 돌아가게 된다. 거기서 그는 라이프찌히 콘서바토리(Leipzig conservatory)의 교사로 활동하며, 라이프찌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지휘자로 35년간 근무하게 된다. 1897년에는 교장이 되어 개선된 지도안과 능력 있는 교사 발탁을 통해 유럽에서도 명성 있는 학교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875년 베를린 아카데미(Berlin Academy)의 일원이 되었고, 1884년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1902년을 끝으로 그는 라이프찌히 콘서바토리에서 은퇴를 하지만 창작 활

8) 사전편찬위원회 편, **음악대사전**, 서울:세광출판사, 1982, p.337

동만큼은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다가 1910년 라이프찌히에서 향년 85세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Reinecke는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 중의 하나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지휘자, 화가, 시인, 행정가로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재능을 보여주었던 인물이다.

후진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펠릭스 바인가르트너(Felix Weingartner, 1863~1942), 레오스 야나케츠(Leos Janacek, 1854~1928) 와 같은 작곡가들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나) Carl Reinecke 의 작품

Reinecke는 작곡가로서, 그의 스승인 멘델스존과 슈만과 더불어 바그너와 브람스의 영향을 받았다. 멘델스존과 슈만에게 사사를 받은 Reinecke는 섬세하고도 감성적인 성향의 곡을 많이 작곡했는데, Reinecke가 브람스와 음악적 친교를 맺으면서 브람스의 세밀함이나 탄탄한 구성력을 더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이나 비유럽에서도 많은 환영을 받았으며,⁹⁾ 비록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창출해내지는 못했지만, 19세기 말의 음악적 형식에 충실하며 독일 낭만파 음악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생애 동안 300개에 달하는 작품을 썼고, 미출판 작품까지 합치면 1000여곡의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아노, 플루트, 하프 등 여러 악기들을 위한 작품을 남겼는데, 특히 <Flute Concerto D Major Op.283> 과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Undine』 는 현재 까지도 연주자들에 의해 많이 연주되어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 외에도 그는 3편의 교향곡, 4곡의 피아노 협주곡, 수많은 실내악곡과

9) 사전편찬위원회 편, **음악대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2, p.337

Sonata 도 작곡하였다.

오페라에서는 “만프레드 왕” (1867)을 비롯하여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의 오페라에 영향을 받은 오페라 작품들을 발표했는데,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피아니스트로서는 모차르트 해석에 탁월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으며 모차르트, 베토벤, 마하, 베버의 피아노 협주곡에 붙인 카덴짜는 매우 유명하다.¹⁰⁾

Reinecke의 주요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참조)

10) 사전편찬위원회 편, **음악대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1982.p.337

| | |
|------------|--|
| 교향곡 | 제 1번 Op.79(1858) 제 2번 [Hakon Jarl] Op.134(1874) 제 3번 Op.227(1895) 어린이 교향곡(장난감 교향곡)Op.239 |
| 협주곡 | 첼로 협주곡Op.82(1864) 바이올린 협주곡 Op.141(1876) 하프 협주곡 Op.182(1884) 플루트 협주곡 Op.238(1908) |
| 피아노 협주곡 | 제 1번 Op.72(1860) 제 2번 Op.120(1872) 제 3번 Op.144(1877) 제 4번 Op.254(1900) |
| 실내악 | 목관 8중주 Op.216(1892) 목관 6중주 Op.271(1905) 현악 4중주 Op.34(1853),Op.272(1904) 현악 5중주 Op.16(1843), Op.30(1851), Op.132(1874), Op.211(1890), Op.287(1890) 피아노 5중주 Op.83(1866).Op.272(1905) 플루트 소나타 [Undine] Op.167(1885) 3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Op.108(1873), Op.116(1872), Op.238(1896) |
| 피아노곡 | 세 개의 소나티네 Op.47(1854) 안단테와 변주곡 두 개의 피아노 Op.6(1884) 요람에서 무덤까지 Op.272(1905) |

표1) Carl Reinecke 의 작품 요약

III. 작품 분석

1. 작품 배경 - 푸케의 창작 소설 “Undine” 의 이해

소설 “Undine” 는 독일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푸케(F.M Fouqué, 1777~1843)가 1811 년에 발표한 창작 동화소설이다.

“Undine” 는 16세기 철학자이자 의학자인 파라셀수스(Philippus Aureolus Paracelsus, 1493~1541)가 그의 저서인 “요정의 책” 에 정의한 물의 요정의 이름이다. 유럽 사람들은 세상 물질은 물, 불, 공기, 흙의 4원소로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파라셀수스는 이 네 원소 각각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고 했고, 불의 정령인 Salamander, 땅의 정령인 Gnome, 바람의 정령인 Sylph, 물의 정령인 Undine로 각 원소의 정령을 구분하였다. 파라셀수스는 이 네 정령은 육체밖에 갖고 있지 못하며 인간과 결합하여야만 비로서 영혼을 얻는다는 우화적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푸케는 이 정령 중 하나인 물의 정령 운디네의 운명에 착안, 창작 동화 “Undine” 를 탄생시켰다.¹¹⁾ 소설 “Undine” 의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물의 요정 운디네는 친딸을 잃은 늙은 어부 부부에 의해서 딸처럼 키워지고 있었다. 천진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닌 운디네는 홀트브란트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홀트브란트를 사랑하게 된 운디네는 인간을 믿지 않는 삼촌 쾰레보른의 경고를 무시한 채, 홀트브란트와 결혼을 감행한다. 결혼을 통해 영혼을 얻게 된 운디네는 본질적인 변신을 하게 되었고, 고통 받는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즉 사랑의 기쁨만이 아니라 고뇌하는 인간의 고통도 동시에 가지게 된 것이다. 부부가 된 홀트브란트와 운디네는 함께 도나우 강 근처에 있는 홀트브란트의 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곳에서 그들은 베르탈다를 만나게 된

11) F.M Fouqué. 2006. *Undine*, 차경아 역, 서울:문예출판사,

다. 이때부터 운디네에게 어두운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다.

홀트브란트는 귀족의 양녀인 베르탈다에게 점차 마음을 뺏기게 되고, 여기에 쾰레보른의 방해로 운디네와 홀트브란트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운디네와 홀트브란트, 그리고 베르탈다 세 사람은 도나우 강을 여행하게 된다. 이 때 쾰레보른으로 인해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여행을 망친 홀트브란트는 격분하게 된다. 그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물가에서 운디네와 그의 친척을 욕하지 말라는 금기를 깨버린다. 그는 운디네에게 화를 내며 그녀를 모욕하고, 이에 운디네는 물거품으로 변하여 강으로 사라지고 만다.

시간이 흘러 홀트브란트와 베르탈다의 결혼식 날, 운디네는 다시 홀트브란트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의 입맞춤을 통해 홀트브란트의 영혼을 빼앗아버린다. 홀트브란트의 장례식날, 운디네는 샘물로 변하여 무덤 주위를 감싸 흐르게 된다.

소설 “Undine”의 사랑이야기는 이 후 사랑과 복수를 소재로 한 많은 작품으로 이어졌다.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 1805~1875)의 "인어공주",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의 "로렐라이"와 같은 작품이 그 한 예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소설은 1814년에 저명한 음악가였던 호프만(E.T.A Hoffmann, 1776~1822)에 의해 오페라로 각색되어 베를린 샤우슈빌하우스에서 무대에 올려져 성공을 거두었고, 이 후 로르칭의 재각색을 통해 함부르크에서 공연되기도 하였다.

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작품 분석

Sonata 『Undine』 는 전체 4악장 구조로 작곡되었다.

제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쓰여졌고, 제 2악장은 론도, 제 3, 4악장은 각각 3부 형식으로 쓰여졌다. 특이한 점은 제 2악장이 느린 악장이 아니라 빠른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고전 양식의 소나타와는 다르게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뒤이어 제 3악장에 느린 악장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각 악장의 형식, 조성, 박자, 빠르기는 다음과 같다.

| 악장 | 형식 | 조성 | 박자 | 빠르기 |
|-------|--------|---------|-----|---|
| 제 1악장 | Sonata | e minor | 6/8 | Allegro |
| 제 2악장 | Rondo | b minor | 2/4 | Allegretto vivace Piu lento, quasi Andante Allegretto vivace |
| 제 3악장 | 3부 형식 | G Major | 4/4 | Andante tranquillo Molto vivace Tempo I |
| 제 4악장 | 3부 형식 | e minor | 4/4 | Allegro molto Un poco piu tranquillo Piu mosso Piu lento I |

표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의 전체 구성

가) 제 1악장

제 1악장은 전형적인 고전주의 소나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잔잔한 호수의 모습, 물의 흐름을 묘사하고 소설 속에서 운디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크게 제시부 - 발전부 - 재현부 - Coda로 나뉘며 제시부에서 제 1주제는 e minor로, 제 2주제는 딸림조인 b minor로 시작되고, 발전부에서는 많은 전조가 일어난다. 그러다 재현부에서 다시 처음의 조성으로 제 1주제를 재현하며 결국 e minor로 끝맺는다.

제 1악장의 형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형식 | 구분 | 마디 | 조성 | 특징 |
|------|-------|---------|-------------------------------------|-----------------|
| 제시부 | 제 1주제 | 1-29 | e | 제1주제 제시 |
| | 연결구 | 29-33 | b | 제1주제의 동기a,b사용 |
| | 제 2주제 | 33-61 | b-G-b-G | 제2주제 제시 |
| | 소중결구 | 61-80 | G | 제1주제 변형,반복 |
| 발전부 | 제 1부분 | 81-120 | e-f [#] -b-C [#] | 제1,2주제의 발전 |
| | 제 2부분 | 121-145 | C [#] -E ^b -e-a | |
| | 제 3부분 | 145-176 | a-e | |
| 재현부 | 제 1주제 | 177-213 | e | 제1주제 재현 |
| | 제 2주제 | 213-241 | g [#] -E | 제2주제 재현 |
| | 소중결구 | 241-252 | E | 제시부 소중결구의 변화 재현 |
| Coda | Coda | 252-267 | e | 제1주제 요소 사용 |

표3)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의 1악장 형식 구조

① 제시부

제시부의 제 1주제는 e minor로, 곡 전체를 이끌어갈 두 개의 동기(a,b)로 이루어져 있다. 플루트에 의해 제 1주제에 대한 선율이 제시되고 있으며, 8분 음표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플루트의 선율과 달리 피아노는 긴 리듬의 화음형을 만들면서 플루트와 대조적, 보완적으로 사용되었다.

플루트 파트를 좀 더 살펴보면, 아르페지오로 도약, 진행해서 빠르게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피아노 파트에서는 긴 음가의 I-V의 화성을 가진 Pedal point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아노 연주자의 경우 이러한 피아노 성부의 지속음과 긴 프레이즈를 활용해서, 깊고 고요한 호수를 잘 표현하도록 한다. 그러함으로써 친진난만하면서도 변덕스러운 운디네의 성격을 플루트가 잘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악보1)

악보1)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8

8마디까지 제시된 주제가 17마디 전까지 확장이 되어 진행되는데, 11,12 마디, 15,16 마디에서는 또다시 피아노 파트에서 주제의 리듬이 나타나는 대위법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즉, 플루트가 제1주제를 변형,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피아노 하성부가 이를 받아서 모방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악보2)

악보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9-16

마디 17에서 *f*로 끝나는 모방은 다시 마디 17~20에서 피아노가 동기 a를 양손에서 스트레토¹²⁾하여 5번 제시되고 있다. 피아노는 3화음의 분산화음을 옥타브를 넘나들며 (주제를) 모방하면서 하나로 동글게 연주한다.

악보3)

12) 스트레토(stretto): <좁은>, <긴박한>이란 뜻의 이탈리아어 사전편찬위원회 편, **음악용어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1, p.723

피아노 : 하나로 동글게 연주

(다음 마디)

e m : V7 ————— i

악보3)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7-20

마디 21-29에서는 제 1주제가 다시 한번 제시된다. 이 때 피아노 파트는 아르페지오로 전환되면서 동적인 진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mf*, *f*의 악상을 사용해서 제 1주제를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21마디부터 피아노 파트는 모티브의 반복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음높이로 되풀이되고 있지만, 앞에서 잔잔하고 고요했던 호수의 모습에서 변화되어 좀 더 출렁이고, 넘실거리는 물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왼손은 마치 <악보 1>에서 피아노가 플루트의 선율을 화성감으로 도와주었던 것처럼 오른손의 8분음표 리듬의 움직임을 폭넓은 화성으로 감싸주는 것이 좋다.

악보4)

악보4)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1-29

마디 29~33의 연결구는 두 마디 단위로 진행이 반복되는데, 피아노 파트의 오른손은 동기 a가 사용되고 있고, 플루트 성부에서는 동기 b가 사용되고 있다. 이 연결구에서는 b minor의 조성을 더욱 확실히 확립하기 위해서 이끔음 A#음을 반복 사용하고 있다.

같은 음형이 두 번 반복 되지만, 악상을 살려서 앞과 뒤의 차이를 분명히 표현해주어야 하며, 또한 피아노 파트와 플루트 파트의 볼륨도 같도록 유의해야 한다. **p**로 나타나 있는 뒷부분은 마치 뒤이어서 올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마저 들게 한다.

악보 5)

b m : V
 이음음 A#음이 계속 나타남.

악보5)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9-33

마디 33에서는 피아노 파트의 오른손에서 *mf*로 16분음표를 이용하여 물결의 출렁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33마디 네번째 박자부터 41마디 세번째 박자까지는 ii-V의 화성진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새로 나올 조성 b단조를 강조해주고 있다.

제 2주제부는 연결구 다음 피아노 파트에 의한 짧은 전주 후에 바로 이어진다. 이 전주부에서는 특히 피아니스트의 넓은 표현력이 요구되어 지는데, 호수의 넘실거림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뒤이어 나오는 제 2주제의 조성은 b minor이다. 소나타 형식에서 조성이 minor인 경우 제 2주제는 대개 원조와 나란한 조¹³⁾로 전조가 되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e minor의 나란한 조인 G major로 전조되지 않고 딸림조인 b minor로 전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고전주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낭만적인 요소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41 마디에서는 제 2주제가 제시되며, 이 부분에서는 피아노와 플루트가 각

13) 나란한 조:병행조, 같은 조표를 쓰는 장조와 단조를 말함.
 사전편찬위원회 편, **음악용어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1, p.26

각 제 1주제에서 사용했던 요소들을 나누어 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피아노 파트의 왼손을 보면 제 1주제에서 주어졌던 코드 반주의 리듬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 오른손의 경우 16분음표로 진행이 이루어지며 제 1주제에서 나온 반음계 음정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제 2주제의 피아노 파트는 순차적 진행의 반복적인 사용을 이용하여 물의 흐름을 표현하고 피아노와 플루트 각각의 세기 변화를 통해서 바뀌는 중심부를 알려주고 있다.

제 2주제에서 피아노에 의해 진행되는 음형은 물의 고요함을 나타내며, 제 1주제에 비해 부드러운 순차진행을 보여주는 플루트는 제 1주제보다는 서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악보6)

악보6)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40-50

50~61마디에서 피아노는 앞에서 플루트가 제시했던 제 2주제를 이전의 물의 흐름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기며 강조하고 있다.

플루트보다 한 옥타브 아래에서 진행되는 제 2주제의 경우, 주제 선율을 하성부의 빠른 분산화음보다 크고 맑게 연주해야 한다. 분산 화음은 제 2주제 선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크지 않아야 하며, 정확한 표현을 위해 양손의 교차 연주가 요구되어 진다. 여기에 제 2주제 선율인 긴 음의 울림과 양손이 교차 연주되는 분산화음의 이음줄 표현을 위해 피아노 연주자의 정확한 페달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제 2주제 선율이 플루트 파트의 음색처럼 맑게 표현되어져야 한다.

50마디부터 b minor 로 제시된 주제는 2주제가 끝날 시점에서 e minor 의 나란한 조인 G Major로 전조되어 있다. 또한 정격종지인 V₇-I 의 진행이 주를 이룬다.

악보7)

피아노 : 위 주제선율을 아래의 아르페지오 성부보다 훨씬 또렷하게 표현(이어서 노래부르기)

50 (플루트보다 한 옥타브 아래에서 반복)
 accrescivo 제2주제
 f
 b m : V₇ i V₇

54 dolce
 i G M : 순차진행

58
 dim. p
 V₇ | (정격종지) 끝내고 다시 시작

악보7)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50-61

61마디부터 80마디까지는 제 1주제 동기 a, b 의 모방에 의한 소중결구로 제시부를 끝맺는다. 플루트와 피아노 성부 모두 두, 세마디 단위로 진행하며 반복되는데, 제 1주제를 응용하여 변형, 반복을 계속한다.

74마디 이후에는 제 2주제의 반주형태인 16분음표 음형을 이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피아노 파트의 경우, 제시부에서 e minor로 연주되던 것이 G Major 로 연주된다. 이는 제 2주제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플루트 파트와의 결합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78마디에서 피아노 연주자는 앞의 플루트의 음형느낌을 그대로 받아 살려서 소중결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악보8)

악보8)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61-80

② 발전부

발전부는 제시부에 있었던 모든 요소들이 발전하는 부분으로, e minor 로 시작하며 전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동형 진행, 대위적 기법, 모티브의 반복 등 다양한 작곡기법들이 사용되면서 다양한 전개가 이루어지는 발전부는 주제와 동기의 활용과 전개방법에 따라 다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1) 제1부분(마디 81~120)

제1부분은 제1주제를 이용한 부분(마디 81~107)과 제 2주제를 이용한 부분(마디 108~120)으로 나뉘어진다.

마디 81부터 플루트가 제1주제를 변형하는 것으로 발전부가 시작하며 이 리듬 형태를 피아노가 받아서 대위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져서 마치 플루트와 피아노가 대화하듯 반복을 거듭한다.

악보 9)

The musical score shows the flute and piano parts for measures 81-88. The flute part starts with a melodic line that is identified as a transformation and repetition of the first theme. The piano accompaniment provides a rhythmic and harmonic foundation, with specific motifs labeled as '동기a' and '동기b'. The overall texture is described as a '대화' (dialogue) between the two instruments.

악보9)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81-88

e minor로 시작된 제 1부분은 93마디부터 f# minor로 조성이 바뀌고 뒤
이어서 b minor 로 발전되다가 108마디부터는 서서히 C# Major 로 전조가
이루어진다.

제 2주제가 변형되는 108마디부터는 플루트와 피아노가 6도 병진행을 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피아노의 오른손 16분음표 진행은 6도 병진행의
멜로디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sound를 줄인다.

악보10)

플루트와 피아노의 6도 병진행 (제2주제의 변형)

원손>오른손

p

cresc.

piu f

C# M : V

악보10)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08-113

2) 제 2부분(마디 121~145)

제 2부분은 화성적으로 가장 풍부함이 느껴지는 곳으로 다양한 전조로 인해 조성이 불분명하고 지속음과 반음계적 진행이 피아노에 사용되고 있다.

제 2주제가 다시 발전되는 플루트 성부를 시작으로 해서 피아노가 바로 이를 모방하고 있다. 마디 128~130에서는 g#음이 지속되면서 왼손은 온음계적으로 하행하고 있는데, 다시 리듬이 축소되어 반복되어진다.

악보11)

제1주제 변형, 반복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21 to 125. The flute part (top staff) begins with a melodic phrase marked 'p'. The piano part (bottom staves) provides harmonic support, also marked 'p'. An annotation '제1주제 변형, 반복' (First Theme Variation, Repeat) is placed above the first system. A bracket labeled '모방' (imitation) spans across the flute and piano parts in measures 121-125.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26 to 130. The flute part continues with a melodic line. The piano part features a descending whole scale in the left hand, marked 'espressivo'. A circled 'g#' in the right hand is labeled 'g# 지속음' (g# sustained note). The piano part concludes with a '축소 리듬' (reduced rhythm) pattern. The key signature i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common time (C).

악보11)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21-130

마디 135~145는 동기 a,b 를 변형한 플루트의 선율과 피아노 왼손의 반음계적 옥타브 진행이 두드러진 부분으로 잦은 물결을 표현한 오른손의 16분 음표 음형들과 왼손의 반음계가 서로 부딪혀서 불협화음을 형성하기도 한다. 조성 또한 E^b-d-e-f[#]-e-a 로 가장 많은 전조를 거듭한다.

악보12)

135 *cresc poco a poco*

135 *crescendo* *poco* *a* *poco*

E^b M : 왼손 : 반음계적 옥타브 진행 d m :

139 *f*

143 VII₇/e VII₇/f[#]

143 V₇/e i/a

악보1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35-145

3) 제 3부분(마디 145~176)

제 3부분은 재현부와 유사하게 시작되는 부분으로 동일한 리듬을 통해 전체 악곡에 통일감을 부여하며, 재현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제 3부분은 발전부의 3개 부분 가운데 화성 변화가 매우 심했던 제 2부분과는 다르게 안정감과 평안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 3부분은 제1주제가 원조 e minor의 버금딸림조인 a minor 로 제시되어 149마디부터는 곡의 주조인 e minor로 다시 전조가 이루어진다.

마디 168~176에서 플루트 선율을 보면 제 1부분의 마디 89~92에서 나타났던 짧은 리듬 모티브의 반복이 다시 나타나며, 피아노 성부의 경우 오른손은 화음형태, 왼손은 분산화음으로 되어 있고 성부가 반음계적으로 반진행을 이룬다.

악보13)

168

모티브의 반복

168

반음계적 반진행 *decrecendo*

172

동형진행

그대로 받아 같은 느낌으로 연주

그대로 받아 같은 느낌으로 연주

172

p

pp

동형진행

악보13)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68-176

③ 재현부

재현부는 177~252 마디 부분으로 제1주제, 제2주제, 소중결구로 나뉘어진다. 제시부와 비슷하게 제시가 이루어지지만 보다 길이가 축소되고,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252~267마디는 coda로 플루트와 피아노 두 악기가 제 1주제에 나타났던 서로 다른 진행 위주의 대위적인 진행 방법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원조인 e minor로 복귀하면서 제 1악장을 마친다.

제시부의 플루트 성부에서 먼저 제시되었던 제1주제 마디 3의 E음이 마디 179에는 G음으로 변형되어 피아노 파트의 오른손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제시부에서는 플루트가 주제 선율을 먼저 제시하고 연주했었지만 재현부에서는 피아노가 주제 선율을 먼저 제시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것은 이 Sonata의 큰 특징(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에 낭만적인 형식의 자유로움이 결합된 형태)으로 볼 수 있다. 177마디부터 피아노가 제1주제 선율을 노래할 때 플루트는 빠른 물의 움직임 표현을 위해 높은 음역에서 16분 음표의 리듬을 진행하고 있다.

악보14)

악보14)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77-185

197마디에서는 다시 플루트가 제1주제 선율을 재현하며 피아노는 아르페지 오이저 모티브의 반복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 1주제와 제 2주제 사이에는 205~213 마디의 연결구가 있는데 제시부의 연결구가 동일한 성격으로 마디가 확장되어 나타난다.

제 2주제의 경우 제시부에서는 b minor 인 반면, 재현부에서는 g[#] minor로 전조되어 시작하여 같은 으뜸음조인 E Major로 마무리 되어진다.

마디 213~230은 플루트와 피아노 성부 모두 제시부의 마디 33~50 과 같은 선율이 나타난다.

악보15)

213 *f*

213 *f*

g# m : V 제2주제 재현 *p*

217 *decresc.* *pp*

221 2 2

227 *espressivo* *mf*

E M :

악보15)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13-230

제 2주제에 이어서 E Major 로 시작하는 소중결구는 제시부의 소중결구와 동일하게 표현하였으나 반복시에는 변형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마디 249~252의 플루트와 피아노는 제 1주제 선율의 동기를 확대 변형시켰다.

악보16)

243 dolce

242

E M : I

248 제1주제 선율 변형(동기 확대) pp

248 e m : i V7

악보16)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42-252

마디 249부터는 원래 조성인 e minor로 돌아와 253마디부터 Coda가 펼쳐진다. 플루트 성부는 제 1주제를 응용하고 있으며 피아노 성부는 코드를 이용한 음형으로 긴 화음이 반복된다. 그리고 마지막엔 IV에서 I 로 변격종지¹⁴⁾하며 조용하고 차분하게 마무리 짓는다. Coda에서 제 1주제가 다시 출현함으로써 주인공 운디네의 모습과 성격을 다시 한번 회상시켜주고 있다. 플루트와 피아노가 동시에 끝나며 페르마타 처리함으로써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악보17)

악보17)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52-267

14) 변격종지(벗어난 마침): 버금 딸림 화음에서 으뜸 화음으로 마침
사전편찬위원회 편, **음악대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2, p.698

나) 제 2 악장

제 2 악장은 운디네의 변덕스럽고 자유분방한 성격과 그에 따른 양부모의 꾸짖음, 그리고 홀트브란트와의 만남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그린 악장이다. 고전 소나타의 형식과 달리 빠른 템포가 제 2악장에 쓰였으며 A - B - A' - C - A" 의 제 2 론도¹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디네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스타카토¹⁶⁾가 자주 사용되고, 3개의 주요한 선율과 그 선율을 이루는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악장의 딸림조인 b minor 로 시작하며 A 부분이 단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반면 B 부분에서는 G Major, C 부분에서는 B Major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각 부분간의 단조와 장조의 대조를 보여준다. 또한 빠르기의 변화도 부분적으로 변하는 것이 이 2악장의 특징이다.

제 2악장의 형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형식 | 마디 | 조성 | 빠르기 |
|----|---------|-----------|-----------------------------|
| A | 1~32 | b-G-e-D-g | Alletretto vivace |
| B | 33~65 | G | |
| A' | 66~97 | b-G-e-D-b | |
| C | 98~131 | B-F#-B | Piu lento, quasi Andante |
| A" | 132~163 | b-G-e-D-b | Allegretto vivace |

표4)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의 2악장 형식 구조

15) 제 2 론도형식 : 주제부 A 사이에 삽입부 B, C를 끼고 되풀이되는 형식으로, 이 형식은 17세기 프랑스의 클라브생악과의 룽도(rondeau)에서 발달하여, 18세기에는 독주용 소나타, 교향곡, 협주곡의 끝악장에 쓰이게 되었다.

사전편찬위원회 편, **음악대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2, p.391

16) 스타카토(staccato) : 연주 기호의 일종으로 음을 분명하게 분리해서 치는 것을 나타냄. **음악용어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1, p.715

① A 부분(1~32 마디)

모두 32마디로 이루어진 A 부분은 마디 1~14와 마디 15~21 두 개의 소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A 부분의 시작은 피아노가 16분음표와 스타카토를 이용하여 먼저 진행한다. 여기에서 피아노 연주자는 2/4박자의 리듬을 정확히 지켜주어야 한다. 악상은 *f*이지만, 스타카토가 너무 무겁지 않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표현하여 운디네의 천진난만하고 자유분방한 모습을 잘 표현해 주어야 한다. 첫번째 마디의 두 화음을 제외한 선율이 주제 동기이며, 양손으로 교차연주를 해도 무방하지만 마치 한 손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주제 선율을 자연스럽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피아노 선율에 뒤이어서 바로 플루트가 대화하듯 연주하는 대위법적인 진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플루트는 약박으로 시작하므로 피아노의 경우 두번째 마디 첫화음을 *sf*(스포르찬도)¹⁷⁾로 분명히 나타내 주어야 한다. 또한 플루트는 이 첫 박을 잘 받아서 주제 선율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피아노 파트에서 반음 관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악장에서도 제시되었던 것으로 2악장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성은 b minor로 시작하여 마디 7부터 한 마디씩 G-e-D로 전조가 이루어진다. 이 전조와 더불어 반복되는 16분음표의 스타카토 음형으로 인해 경쾌하고 익살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냄은 물론, 5마디부터는 주제 동기의 모방과 반복의 효과까지 더하고 있다.

악보18)

17) 스포르찬도(*sf*) : 하나의 음표 또는 화음에 <갑자기 강한 악센트를 붙여서>라는 뜻. **음악용어사전**, 서울:세광출판사, 1991, p.687

피아노의 sf 첫 박을 받아 플루트 연주

주제 동기의 모방과 반복의 연속

주제 선율 동기
f (피아노가 먼저 제시) sf

반응

반응

반응

반응

b m :

stretto

ten.

G M : e m : D M :

악보18)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1-9

A 부분의 두 번째 소부분으로 넘어가는 13~15마디에서는 D Major의 I도 분산화음이 4옥타브에 걸쳐 플루트부터 피아노까지 이른다.

피아노 왼손의 순차 하행 화성으로 시작되는 두 번째 소부분 15마디부터는 4마디 단위로 장2도 위 동형 진행이 나타나는데 악상은 **pp**이지만 피아노가 선율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플루트보다 노래를 더 표현해야 한다.

비교적 고음에서 아주 작게 스타카토로 표현하고 있는 플루트를 감정이 풍부한 노래로 피아노 연주자가 리드해주어야 한다.

악보19)

4옥타브의 넓은 음역(1도 분산 화음)

동기를 변형해 새로운 주제 선을 제시

동기 변형

순차 하행

espr.

장2도 위 동형진행

D M :

악보19)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13-23

마디 23의 시작 또한 피아노로부터 시작된다.

플루트와 피아노의 대화가 주를 이루는 2악장에서 앞부분은 피아노가 주제 선율을 먼저 제시했지만, 이 부분은 플루트가 주제 선율을 노래하고 있다. 다만 피아노는 *mf*인데 반해 주제 선율을 나타내어야 하는 플루트는 *p* 이므로 자칫 마디 24의 피아노 첫 화음이 플루트의 주제 선율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악상 기호 \wedge 가 표시되어 있지만 강하게 치고 relax하는 피아노 연주자의 테크닉이 요구된다. 마디 27~32는 마디 9~15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부분으로 플루트와 피아노 두 악기 모두 가볍고 익살스럽게 표현해야 하며 마디 31에서는 V-i로 정격 중지한다.

악보20)

악보20)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23-32

② B 부분(33~65 마디)

피아노로만 시작되는 이 부분은 G Major로, 연속되는 붙점 리듬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16분음표 스타카토 리듬에서 붙점 리듬이 새롭게 등장해 새로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물의 정령 운디네가 사랑하는 홀트브란트를 만나 물의 정령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변화될 지를 고민하는 갈등이 느껴진다.

또한 계속되는 붙점 리듬과 좁은 음역 안에서 주고 받는 선율은 운디네의 불안한 심리를 묘사하는 듯하다. 새로운 음형이 제시되는 33마디부터는 G Major 의 으뜸음인 G pedal point 가 나타나고 A 부분에서 제시된 반음계적 진행이 포함되어 있다. 마디 50~57은 플루트 성부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디 58~65는 마디 33~40의 피아노 성부 진행이 변형되어 주제가 그대로 나타나다가 마디 65에선 V-I로 정격 종지한다.

악보21)

주제 선율(피아노)

33

반음계적 상행

반음계적 반진행

G M : Pedal point

반음계적 상행

39

불정 리듬 반복 표현

45

악보21)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33-49

③ A' 부분(66~97마디)

A 부분이 거의 그대로 재현되는데, C 부분으로 진행하기 전 셋잇단 음표를 미리 사용하여 연결구를 형성하고, C 부분의 B Major로 전조하기 위해 B Major의 V를 중심으로 표현된다. b minor와 같은 으뜸음 조인 B Major 로의 전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결구는 앞의 빠른 부분과 뒤의 느린 부분, 앞의 minor와 뒤의 Major, 앞의 16분음표 음형과 뒤의 셋잇단음표 음형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피아노 연주자의 테크닉이 요구된다. 95마디는 cresc. 하며 빠르게 올라갔다가 96마디 첫 음을 살짝 눌러줌으로써 템포를 조절하며 decresc.하여 97마디에서는 자연스럽게 rit. 해서 C 부분으로 이동한다.

악보22)

A와 다른 부분
(B Major의 조성 확립을 위한 연결구)

V

악보2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95-97

④ C 부분(98 ~ 131마디)

C 부분은 B Major로 시작하며 A, B 부분과는 다르게 느린 템포로 대조적이다. 사랑에 빠진 운디네와 홀트브란트를 표현하기 위해 부드러운 음색을 나타내기 위해 적합한 플루트의 중저음이 사용되었고, 피아노는 부드러운 셋잇단음표의 아르페지오 반주를 사용하고 있다. 마디간의 붙임줄은 당김음¹⁸⁾의 효과를 주며, 플루트의 선율과 피아노의 3연음이 헤미올라 리듬을 이룬다. 긴 프레이즈의 레가토 선율이 특징인 C 부분은 플루트 연주자에게 프레이즈가 끊어지지 않도록 긴 호흡이 요구되며, 피아노 연주자는 고요하게 물이 흐르는 듯한 반주, 그리고 왼손 Bass 와 플루트의 선율이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고, 오른손은 등글게 표현하도록 한다.

악보23)

주제 선율

주제 선율 동기

(ohne jegliche bebung im ton)

플루트와 피아노 2:3

pp

등글게(마음의 동요 표현)

B M : I

악보23)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98-103

18) 음악대사전, 서울:세광출판사, 1993, p.1044

114마디부터 131마디까지는 피아노의 3연음 반주형이 하성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피아노 파트의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도 2:3이 나타난다.

악보24)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114-119 of the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The score is written for flute and piano. The piano part features a 3-note triplet pattern in both hands, with a 2:3 ratio indicated between the right and left hands. The tempo is marked 'ppp' and the performance instruction '(속삭이듯이 표현)' is present.

피아노에 나타나는 2:3 (오른손과 왼손)

악보24)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114-119

⑤ A" 부분(132~163마디)

제 2악장 처음 시작인 A 부분과 동일하게 원래의 조성인 b minor 와 Allegretto vivace 로 돌아와 A 부분을 동일하게 재현한 뒤 끝을 맺는다.

다) 제 3 악장

모두 67마디로 이루어진 이 곡에서 가장 짧은 제 3악장은 유일한 느린 악장으로 사랑에 빠진 연인의 대화(A)와 쾰레보른의 홀트브란트의 배신에 대한 경고(B)가 나타나는 곳이다.

G Major 의 4/4 박자로 조성의 변화와 속도의 변화에 의해 A-B-A로 나뉘는 3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A 부분과 B 부분은 각각 G Major, b minor 로 3도 관계인데, 이는 앞의 악장들과의 관계를 적용한 거라 볼 수 있다.

두 연인의 대화가 주를 이루므로 성부의 병진행, 성부간의 모방, 대화식의 진행 등 여러 대위적 기법이 나타나고, 제 2악장의 사랑 표현 부분처럼 플루트의 중저음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3악장에서는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와 강한 암시를 잘 표현해내는 연주가 필요하다.

제 3악장의 형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형식 | 마디 | 조성 | 빠르기 |
|----|-------|----|--------------------|
| A | 1-35 | G | Andante tranquillo |
| B | 36-53 | b | Molto vivace |
| A | 54-67 | G | Tempo I |

표5)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의 3악장 형식 구조

① A 부분(1~35 마디)

A 부분은 주제의 진행방식이나 플루트와 피아노의 대화 방법에 따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디 1~16/ 마디 17~35)

앞부분은 플루트와 피아노가 주제 동기를 3도 병진행 하면서 곡을 시작하고, 뒤이어 두 악기가 서로 대화하듯 주제 선율을 번갈아가며 노래한다.

반면에 뒷부분은 두 악기가 옥타브 또는 같은 음으로 똑같이 주제 선율을 노래하며 피아노의 가장 윗 성부와 플루트의 선율이 같은 음을 연주하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이 곡에서 유일하게 Major 로 시작되는 제 3악장은 으뜸음 G 음을 피아노의 Pedal point 로 처리하며 곡을 시작한다.

플루트와 피아노가 주제 선율 동기를 3도 병진행하며 노래하다가 곧이어 피아노가 이를 받아서 단독으로 노래하고, 두 악기가 번갈아 가며 대화하듯 동기를 주고 받는다. 첫 동기에서부터 두 음씩 반응을 표현한 곳이 많은데, Reinecke의 반응계적 작곡기법이 이 3악장에도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주제 동기를 보면 플루트는 이음줄이 두 음씩 연결되어 있고, 반면 피아노는 한마디 전체가 이음줄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3악장은 단선율적인 플루트와 대비되어서 피아노 파트의 성부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3악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피아노의 풍부한 화성감으로 인해 마치 오케스트라가 조용하고 잔잔하게 합주하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피아노 연주자는 주요 멜로디 선율과 그렇지 않은 화음들의 밸런스를 잘 조절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악보25)

주제 동기

주제 동기 반복

주제 동기 모방

음정 3도 병행

G M : Pedal point

주제 동기 모방

전체적으로 음정 3도 병진행

순차 진행

p dolce

p dolce

f

p

악보25)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1-8

9마디부터 12마디까지는 피아노가 먼저 주제를 제시하고 플루트가 이를 받아서 연주한다. 피아노를 반주의 영역에 국한 시키지 않는 또 하나의 대목이다.

피아노의 G 음 Pedal point 는 계속 나타나며 오른손 성부와 왼손 성부끼리의 3도 병진행도 나타난다. Reinecke의 일관성 있는 작곡 기법을 느낄 수 있다. 9마디에서 피아노 연주자는 *mf*로 선명하게 주제 선율을 나타내 주어야 하며, 순차 진행하다가 6도로 간격이 벌어지는 d와 f#의 도약에서는 벌어진 간격만큼이나 감정의 표현을 나타내 줌이 필요하다.

악보26)

<피아노와 플루트의 계속된 대화>

6도(벌어진 간격만큼 감정 표현)

동기

동기

동기

동기

mf

3도 병진행

Pedal point

악보26)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9-12

A 부분 중 뒷부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18마디부터는 부속화음, 반음계적 비화성음을 사용함으로써 풍부한 화성 진행을 보이며 플루트와 피아노의 순차 진행이 계속된다. 아울러 병진행, 반진행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성부 진행이 나타나며, 피아노 파트의 왼손 베이스에 G음이 지속저음으로 연이어 나오고 있다.

또한 2:3이 제 2악장 이후로 다시 나타나는데 특히 **f**로 나타나 있는 19마디의 2:3은 삼각형 구도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또한 듣는 이들이 2:3인지 느껴지지 않게 감정을 쏟아 왼손은 작게, 오른손은 - (테뉴토) 로 연주해야 한다.

20마디 calando 이후에는 21마디에서 두 악기 모두 **pp**로 같은 선율을 연주하게 되는데, 이때는 새로운 느낌으로 음색의 변화를 주도록 한다.

악보27)

악보27)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17-21

마디 32-35 에서도 피아노에 G 음 Pedal point 가 나타나며 마디 34부터 B 부분의 주된 음형인 3연음이 등장하면서 B 부분으로 연결해주는 연결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B 부분에 나타날 음악과 진행을 예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35마디 첫 부분에 accelerando가 제시되어 있지만 B 부분의 Molto vivace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accelerando 타이밍을 35마디 세 번째 박자부터 살리도록 한다.

악보28)

반음계적 진행

pp 두 악기의 같은 선율 진행

G pedal point

accelerando molto

타이밍 뒤쪽에 돌것

뒷부분에 나올 음형 제시

악보28)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32-35

② B 부분(36~53마디)

B 부분은 3도 관계조인 b minor로 시작하며, Molto vivace로 빠른 3연음의 선율이 계속 반복되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듯한 분위기를 유발하고 있다.

A 부분의 평온하고 설레었던 사랑의 분위기가 변하여 쾰레보른의 경고와 함께 불안감과 공포감이 엄습함을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즉, Molto vivace로 템포 변화, 3연음의 연속 사용, 반음계적 하행, 악상의 변화, 잦은 비화성음 사용 등이 그것들인데 악보 29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악보29)

Molto vivace : Tempo 변화 잦은 비화성음이 사용되는 passage

3연음의 음형으로만 이루어진 새로운 동기

pp e mormorando f p

조성이 minor로 변함 b m : Pedal point

순차상행 반음계적 하행

반음

악보29)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36-43

③ A 부분(54~67)

Tempo I의 빠르기와 G Major로 돌아온 이 부분은 앞의 A 부분이 축소된 형태로서, 앞의 부분과 다른 점은 주제 동기를 피아노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3악장의 가장 처음 부분에서는 플루트와 피아노가 동시에 주제 선율을 노래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피아노에 먼저 주제가 나타나고 플루트가 동기를 변형하여 이어받는 형태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보통의 3부 형식이 그러하듯이 곡 또한 이 A부분에서 주제 선율을 한번 더 제시한 뒤 I - V₇ - I의 정격 중지 형태로 마무리 했는데, 단조로움을 깨기 위해 마디 60-61에서는 두 악기의 약박에 액센트를 주었다.

두 악기가 > 를 똑같은 느낌으로 같이 주고, 64마디 네 번째 박자에서는 피아노 연주자가 마무리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3연음부의 Tempo 를 약간 느리게 조절해 준다.

66-67 마디에서도 주제 선율을 피아노가 제시하는데, 곡의 끝을 맺음에 있어 플루트 연주자와 호흡을 같이 하여 마지막 음까지 정확한 타이밍에 두 악기가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제 1악장의 마지막 음과 같이 페르마타의 여운을 느끼며 연주를 마무리 한다.

악보30)

A부분과 달리 피아노가 먼저

주제 동기 제시

주제 동기 모방

주제 동기 *p dolce*

주제 동기 모방

반복

mf cresc.

G M :

약박 자리에 오는 액센트

f

2:3

p

G M :

반복

Tempo 느리게 조절

p

pp

pp

calando

여운

G M :

G pedal point

정격종지

악보30)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54-67

라) 제 4악장

제 4악장은 제 1악장과 마찬가지로 e minor 로 시작하지만 4/4 박자의 빠른 악장으로 매우 화려하다. 마치 2/2 박자처럼 플루트와 피아노 두 악기 모두 앞으로 진행되는 느낌으로 연주해야 하며, 지루하게 연주해서는 안된다. 전체 악장 중 유일하게 피아노가 아닌 플루트가 첫 음을 내는 악장으로, A-B-A-Coda 의 3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분별로 빠르기의 변화가 자주 나타나고, e minor의 같은 으뜸음조인 E Major로 끝맺음하는 것이 이 악장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켈레보른의 방해에 화가 난 홀트브란트는 운디네를 배신하게 되고, 이에 배신당한 운디네가 결국 그를 죽이고 그의 무덤 옆에 샘물이 되어 영원히 흐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 4악장은 이러한 내용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다른 여러 조성의 전조를 통해 조성의 다채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제 4악장의 형식구조는 다음과 같다.

| 형식 | 마디 | 조성 | 빠르기 |
|------|---------|---|---------------------------|
| A | 1~89 | e-G-a-G-D-B | Allegro |
| B | 90~159 | B-e-C-D-f [#] -b | Un poco piu tranquillo |
| A | 159~278 | e-c [#] -E-A ^b -e-b | Allegro piu mosso |
| Coda | 279~317 | E | Piu lento |

표6)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의 4악장 형식 구조

① A 부분(1~89마디)

플루트는 도약과 당김음을 이용한 동기들로 구성된 주제 선율을 먼저 제시하고, 이 주제가 변형 및 이조되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도약을 이용한 동기로 구성 되었지만 주제 선율 자체는 매우 서정적이다.

피아노의 경우 플루트의 주제 선율을 더욱더 화려하게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왼손에는 옥타브를 이용한 순차진행을, 오른손에는 3악장에 쓰였던 8분음표 음형의 동기가 아르페지오 형태로 다시 나타나 전체 악장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악보31)

주제 선율
(도약과 당김음을 이용한 동기들로 구성)

당김음

악보31)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11

1,2,3악장 모두 그러했듯이 4악장도 일단 한 악기가 주제 선율을 노래하면 다른 악기가 바로 그 주제를 따라 노래한다. 11마디부터는 앞의 플루트 주제 선율을 피아노의 왼손이 받아 노래하기 시작하며, 16마디부터는 플루트가 앞보다 더 넓어진 도약과 반음계를 이용해 주제 동기를 약간 변형해 노래하는데, 이는 더 격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32)

(붙임줄을 이용한
계속된 당김음 사용)

악보3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6-25

25마디부터 피아노가 같은 음형으로 반복, 하행하는 연결구가 짧게 나온 후, 27마디부터 플루트와 피아노가 똑같은 음형으로 작게 연주되기 시작한다.

피아노의 왼손은 마치 트릴 같은 지속 음형이 계속되고, 도약으로 이루어진 두 악기의 선율은 조금씩 *cresc.* 되어 간다. 제 35마디에 이르러서 다시 *f* 로 4악장의 첫 부분을 그대로 재현하며 진행이 이루어진다.

악보33)

두 악기의 같은 대화(동기a)

같은 음형으로 반복 하행(연결구)

마치 트릴같은 지속음형(불완전한 bass)

두 악기의 같은 대화(동기b)

1마디 다시 재현

악보33)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5-36

54마디 전까지 피아노는 앞의 리듬형을 그대로 진행시킨다.

이 때 마디 45~50 까지는 피아노 왼손의 반음계 순차 상행 진행을 통해 *f* 에서 *ff* 로 변해가는 효과를 더해주기도 한다.

53마디부터는 a minor의 조성으로 시작해서 마디와 마디를 서로 모방하는 형태로 악곡이 진행된다. 피아노 연주시에 아르페지오 음형에만 신경을 쓰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곳으로, 4박자를 끌어주는 화음과 화음 사이도 끊어지지 않고 연결할 수 있도록 연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악보34)

53
f con fuoco 피아노 음형이 바뀜
mf 마디 내 모방
 a m :

57
dolce 화음 연결
dolce 모방

악보34)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53-61

② B 부분(90 ~ 159마디)

B 부분은 제 3악장의 B 부분과 비슷한 3연음부 진행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 3악장에선 빠르게 진행되었던 부분이 여기에선 느린 템포로 변화되어서 나타난다.

B 부분의 처음은 플루트와 피아노 두 악기가 교대로 3연음을 연주하다가 96 마디부터는 두 악기가 같이 연주한다.

악보35)

새로운 선율 제시
(분산화음 형태의 3연음부)

90

90

B M :

94

플루트 선율을 피아노가 모방

94

두 악기가 분산화음 형태로 같이 노래

dolce

악보35)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90-97

마디 111~114 에서는 Reinecke가 동기의 반복, 모방, 변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먼저 시작된 동기를 플루트와 피아노 왼손이 반복하고 있다. 이 때 차이가 나는 것은 단순히 옥타브 위치만 바뀐 점이다.

이 후 113마디에서 8분음표 음형으로 리듬이 변하며, 다시 114마디에선 3연음부 음형으로 리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 때, 이 안에 숨어있는 동기 선율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이 동기를 선명하게 살리기 위해서 113마디 부분은 양손으로 나누어 연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악보36)

“플루트와 피아노가 같은 선율 노래”

동기 반복 오른손 동기 변형, 모방

동기

동기 반복 왼손

(동기를 선명하게 하기위해 양손으로 나누어 연주)

악보36)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11-114

115마디부터 130마디는 플루트와 피아노의 주고 받는 대화식 연주가 계속 이어진다.

플루트에 의해 시작된 변형된 주제 선율은, 다시 피아노에게 넘겨진다.

이 때 피아노 연주자는 양손의 유니즌(Unison)으로 이루어진 8분음표 음형을 *cresc.* 로 진행시켜 119마디부터는 마치 피아노 솔로곡을 연주하듯 매우 정열적인 *ff* 로 연주를 진행한다.

이후 124마디부터는 플루트가 다시 선율을 받고 있는데, 이 때 플루트 선율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아노는 *decresc.* 를 취하고 있다.

피아노 연주자는 마디 첫 음의 Bass 들이 반음계로 상행 진행하기 때문에 이 음들의 진행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decresc.* 시키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악보37)

변형된 주제 선을 제시

115

115

cresc. 로 상행 진행

반음

120

피아노 : 주제 선을 (정열적으로 피아노 솔로같이 연주)

passione ff

125

125

decresc.

Bass 음들 반음계로 순차 진행

악보37)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15-130

마디 132부터 135까지는 뒤이어 올 플루트의 3연음부 음형을 피아노 파트가 먼저 보여주고 있다. 다시 136마디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매우 대조적인 분위기가 곡에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플루트의 3연음부 진행 속에서, 피아노는 오른손에 주제 선율을 제시하고, 왼손은 매우 낮은 음역에서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마치 홀트브란트로부터 배신당한 운디네의 절망감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곧이어 두 악기가 역할을 바꾸어, 144마디부터 플루트가 피아노 연주를 받아서 다시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때 피아노 파트의 왼손의 경우 마디 첫음에 > 를 살려 148마디에 **f**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

악보38)

135

3연음부 음형으로 바뀔 것을 피아노가 예시

피아노 : 주제 선율

espressivo

피아노의 낮은 음역(운디네의 분노, 절망감 표현)

140

144

플루트 : 주제 선율 모방

동형 진행

f con fuoco

> 살려 연주

f

악보38)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35-148

③ A 부분(159~278 마디)

첫 부분을 보면 앞의 A 부분이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7마디부터는 앞부분에 비해서 더욱 확장된 느낌을 주게 된다. Reinecke가 이 부분에서 c[#] minor 의 I 화음을 시작으로 잦은 조성 변화, 반음계 진행, 대위적 기법, Pedal Point 그리고 지속음 등을 통해 변화를 주고, 앞에 제시했던 주제 선율을 다양하게 변주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악보39)

피아노가 melody 계속 진행

187 주제 선을 뒷부분 모방

ff con fuoco

c# m : i B M : vii7 V

191 *p*

I vii7 E M : V

196 반복

지속음

반음계 순차 진행

악보39)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187-199

마디 211부터는 A^b Major로 조성이 바뀌며, A^b 음이 길게 지속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플루트와 피아노가 주제 선율을 서로 Octave unison한다.

그리고 225마디부터 뒤에 나올 플루트 선율을 피아노가 먼저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의 악보 38부분에서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이루어져있다.

그 이후 229마디에서 E Major로 조성을 바꾸는데, 피아노는 여기서부터 많은 반음들로 인해 8분음표의 음형이 불협화적으로 들리게 된다. 여기서 피아노 연주자는 피아노 파트가 **ff**이고, 플루트 파트가 **f**임을 상기해야 한다.

하지만 피아노의 소리가 자칫 플루트 선율을 방해할 수 있음을 감지하고 이에 유의하며, 피아노 음이 불협화음이 많기 때문에 pedal 사용시에 지저분한 소리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악보40)

이명동음 전조

211 dolce

216 A^b M : A^b (중요하게 강조) A^b (중요하게 강조)

Pedal point

221 Octave unison

f ma dolce 뒤에 나올 음형 미리 예시

227 ff con fuoco

피아노연주 : 1.매우 크지만 플루트 선율을 방해하지 않는 소리
2.Pedal 깔끔하게 조심

악보40)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11-230

마디 247부터는 템포 변화가 눈에 띈다. 또한 주제 선율을 반복 연주한 후에, 마디 263부터 플루트와 피아노가 두 마디 단위로 선율을 반복, 모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피아노 파트의 오른손이 주 멜로디를 연주하게 된다. 이 부분을 연주할 때는 피아노 세번째 박에 > 를 살려 플루트의 첫번째 박 > 와 어우러지도록 하여 훨씬 다이내믹한 효과를 나타내 주어야 한다.

271마디부터는 Coda로 가기 위한 연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피아노 연주자는 271-274 마디까지는 볼륨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275마디부터 서서히 템포를 느리게, 볼륨도 함께 줄여서 뒤에 이어질 Coda의 빠르기,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악보41)

263

263

지속음

반복

268

반복

아직은 너무 작지 않게

대조

274

274

Coda로 가기 위한 연결구 -
Tempo 서서히 느려지면서,
더 표현해주기

악보41)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63-278

④ Coda(279~317마디)

Coda 는 템포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조성 또한 e minor 의 같은 으뜸음조인 E Major 로 전조가 이루어진다. 피아노 파트의 오른손이 먼저 281마디부터 주선율을 제시하며, 289마디에서 플루트가 선율을 받고 있다.

이 선율은 제 2악장 C 부분에서 제시되었던 선율과 같은 것으로, 마디 289에서 피아노는 3연음부를 둥글고 잔잔하게 깔아주면서 플루트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악보42)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Coda section of the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measures 279-296. The score is in E major and 3/4 time. It features a piano part and a flute part. The tempo is marked 'Piu lento'. The piano part starts with a piano (pp) dynamic and includes a 'Una corda' instruction. The flute part is marked 'pp' and includes a 'pizzicato' instruction. The score is annotated with Korean text: '플루트' 소리처럼 표현 (Express like the sound of the flute), 진행 (Progression), '플루트' 소리처럼 표현 (Express like the sound of the flute), E M : Una corda(시작 부분만 봤았다 떼기) (Una corda (remove the beginning part)), and 둥글게 표현 (Express smoothly).

악보4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79-296

이어지는 마디에서는 제 2악장 C 부분의 노래가 조성만 변화한 채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 305마디에서 281마디의 주 선율이 *ppp*의 세기로 변하여 들릴 듯 말 듯 재현되고 다시 312-313 마디에서 V-I로 정격 중지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I도 화음이 분산화음으로 연장되면서, 코드와 아르페지오로 조용히 마무리 된다.

313 마디에서 플루트가 G#음을 길게 끌고 있을 때, 피아노 파트를 보면 악상이 *ppp*를 사용하고 있지만, 되도록 *una corda*를 사용하지 않고 음량을 잘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마디에서는 플루트의 E 음과 피아노의 Bass E 음을 서로 잘 맞춘 뒤에 아르페지오 처리를 함으로써 화음의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홀트브란트의 무덤 옆에서 샘이 되어 흐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운디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도록 곡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악보43)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310-317.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measures 310-313) shows the flute part on the top staff and the piano accompaniment on the bottom two staves. The piano part features a V7 chord and a *ppp* dynamic marking. Annotations include 'EM: IV' below the piano part, 'V7 정격중지' below the piano part, and '되도록 una corda 사용하지 않고 작게 볼륨 조절' with an arrow pointing to the piano part. The second system (measures 314-317) shows the flute part on the top staff and the piano accompaniment on the bottom two staves. The piano part features a broken chord ('분산 화음') and an annotation '피아노 Bass 음과 플루트의 끝음 맞추기' with an arrow pointing to the final notes of both p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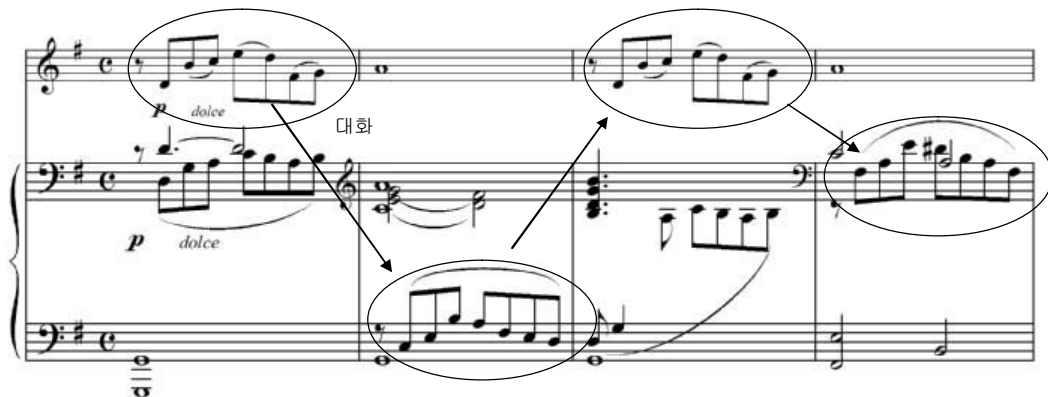
악보43)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310-317

3. Sonata 『Undine』 속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 정리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저자는 1,2,3,4 악장의 분석을 통해 각 악장에 제시된 표제적 요소와 음악의 결합 관계, 플루트와 피아노 두 악기의 음악적 관계 및 피아노 연주자가 이해해야 할 선율상의 특징 그리고 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작곡 기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을 통해 파악된 Sonata 『Undine』에서 Reinecke가 사용했던 음악적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피아노 파트를 단순히 반주로서 그 역할을 국한시키지 않고, 플루트와 앙상블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Reinecke의 작곡 의도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주제 선율이 한 악기에 편중되지 않고 Rhythmic Echo기법으로 쓰여졌다.



악보44)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1-4

- 두 악기가 서로 Octave unison으로 주제 선율을 연주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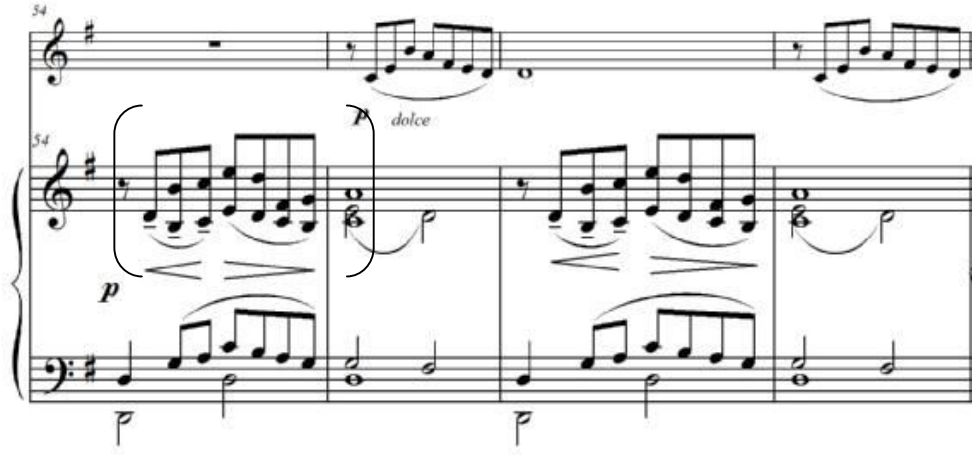
악보45)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4악장 mm.221-224

- 피아노와 플루트의 선율을 같이 묶어서 생각할 때, 한 프레이즈의 온전한 선율을 형성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악보45)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4악장 mm.221-224

- 악곡 전개시에 피아노가 주제 선율을 먼저 제시하도록 작곡된 부분이 많다.



악보47)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54-57

- 곡에 사용되어진 음악 기법들이 피아노와 플루트 두 악기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작품분석 참조)

- ② 고전 소나타 형식과 낭만주의 형식이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 대개 고전소나타에서는 제 2악장은 느린 템포를 보여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곡 Sonata 『Undine』의 경우, 제 2악장은 빠른 악장으로 제 3악장을 느린 악장으로 배치해서 고전 소나타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한 곡, 또는 심지어 한 악장 내에서도 템포 변화가 많이 보인다. 이는 표제 음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작곡가가 표제의 즐거움을 효과적

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 이 곡 전체적으로 전조(3도 관계조, 버금딸림음조, 딸림음조, 같은 으뜸음조 등)를 많이 사용되었고, 불협화음, 비화성음도 자주 사용되어졌다.
- 반음계적 기법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후기 낭만주의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품분석 참조)

③ 대위법적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 Reinecke는 이 작품에서 주제 선율과 주제 선율 내에 있는 동기를 한번 제시한 후 악장 전체에서 계속 이를 반복하거나, 변형, 확대, 모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악장과 악장 사이의 관계에서도 앞악장에서 사용했던 모티브를 뒷악장에서 다시 재사용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곡 전체에 통일성을 주기 위함이다.

위의 특징으로 인해 성부의 모방, 성부의 반진행, 성부의 병진행 등 대화 기법이 곡 전체에 걸쳐 나타나 있다.

(작품분석 참조)

④ 이외에 사용된 음악 기법은 다음과 같다.

- 순차진행(상행 또는 하행)

The image displays three systems of musical notation for a flute and piano. The first system (measures 40-43) features a flute line with a descending sequence from G4 to E4, marked '하행' (descending), and an ascending sequence from E4 to G4, marked '상행' (ascending). The piano accompaniment consists of a continuous sixteenth-note pattern in the right hand and block chords in the left hand. The second system (measures 44-47) shows a similar descending sequence in the flute, marked 'dolce'.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the sixteenth-note pattern and block chords. The third system (measures 48-49) shows a final descending sequence in the flute. The piano accompaniment concludes with a final chord in the left hand and a melodic phrase in the right hand.

악보48)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40-49

- 당김음 기법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당김음

악보49)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4악장 mm.1-8

- 모티브에 의한 Stretto 효과(음형 반복으로 인한 긴장감 조성)

악보50)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5-8

- 2:3

1) 플루트와 피아노간 2:3 기법이 사용되었다.

(ohne jegliche bebung im ton)

pp

악보51)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98-101

2) 피아노의 오른손과 왼손간에도 2:3 기법이 사용되었다.

악보52)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2악장 mm.116-117

- 모티브의 반복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the first movement of a sonata for flute and piano. The score is written in E major and 4/4 time.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21 to 25,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26 to 28. The flute part (top staff) begins with a forte (*f*) dynamic and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slurs. The piano accompaniment (bottom two staves) starts with a mezzo-forte (*mf*) dynamic and features a rhythmic pattern of eighth notes in the right hand and block chords in the left hand. The key signature ha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Measure numbers 21, 26, and 28 are clearly marked at the beginning of their respective staves.

악보53)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1악장 mm.21-28

- Pedal Point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three measures (measures 9-11) from the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The score is written for flute and piano. The flute part (top staff) begins with a rest in measure 9, followed by a melodic line in measures 10 and 11, marked with a piano (*p*) dynamic. The piano accompaniment (middle and bottom staves) features a steady eighth-note pattern in the right hand and a bass line with a constant pedal point on the note E (circled 'e' in the bass clef). The piano part is marked with a mezzo-forte (*mf*) dynamic. The key signature i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악보54)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Op.167 3악장 mm.9-11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Undine』의 악곡을 분석하고,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곡의 특징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전체 4악장의 고전 소나타 형식에 낭만주의 형식이 결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부의 병진행, 성부간의 모방과 같은 대위법적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피아노와 플루트가 마치 대화하는 듯한 곡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사랑에 빠진 연인의 대화가 주를 이루는 3악장에서는 위 기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 운디네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스타카토를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사랑에 빠진 운디네를 묘사하기 위해 중저음의 플루트 음과 아르페지오 피아노 반주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순차진행, 당김음, Stretto 효과, 2:3, 모티브의 반복, Pedal Point 와 같은 음악적 기법이 소설 “Undine”의 이야기 진행에 맞도록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곡에 나타난 여러 특징들 가운데서도, 피아노와 플루트 두 악기의 음악적 관계가 보여주는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악곡 분석 결과, 피아노가 주제 선율을 제시하며 곡의 흐름을 리드하는 경우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플루트와 피아노 두 악기가 Sonata 양상블을 위해 서로 대등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연주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1악장 제시부에서 피아노 파트는 성부의 지속음과 긴 프레이즈를 활용함으로써 호수의 고요함을 잘 묘사하면서 상대적으로 플루트가 표현하고 있는 운디네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 피아노 선율을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3악장은 단선율적인 플루트와 대비되어서 피아노 파트의 성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피아노의 풍부한 화성감으로 인해 마치 오케스트라가 조용

하고 잔잔하게 합주하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피아노 연주자는 주요 멜로디 선율과 그렇지 않은 화음들의 밸런스를 잘 조절해야 함이 요구된다. 이렇듯 피아노 연주자가 플루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곡의 흐름에 적절한 테크닉을 구사함으로써, 곡 연주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피아노 연주자가 플루트와의 앙상블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의 악장 분석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알아본 Reinecke의 Sonata 『Undine』는 여러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통해 Reinecke는 소설 “Undine”에 나타난 문학적 요소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그리고 이 음악적 요소들은 플루트와 피아노 두 악기 모두에게 나타난다. 이에 저자는 이 곡을 플루트를 위한 곡으로 이해하고 피아노를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악기로 바라보는 관점이 작곡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두 악기의 선율이 서로 얽혀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플루트와 피아노와의 앙상블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둘간의 조화를 염두에 두며 작곡을 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게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이다.

따라서 피아노 연주자는 Sonata 『Undine』 연주시에 플루트와의 관계를 충분히 숙지하고 연주에 임해야 더 깊이 있는 연주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피아노와 플루트 연주자 모두 앙상블이 가지는 효과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피아노 연주자의 경우 플루트와의 앙상블을 고려하여 본 논문의 본문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들을 참조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연주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김문자 외 4인 공저. 1993.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심설당
- 김혜정. 2003. **서양음악의 흐름**. 서울:도솔
- 송무경. 2004.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1**. 서울:예술
- 이남재 김용환 저. 2006. **19세기 음악**. 서울:음악세계
- 이동일. 1989. **절대음악과 표제음악에의 접근**. 서울:월간음악사
- 홍세원. 1998. **서양음악사**. 서울:현대 음악 출판사
- 홍정수, 오희숙. 1990. **음악미학**. 서울:음악세계
-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저. 1996. **두길 서양 음악사**. 서울:나남출판사

2. 번역서

-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1991. **A History of Western Music**. 서울:세광음악출판사
- Motte Fouqué, Friedrich de la. 2006. **Undine (물의 요정 운디네)**. 차경아 역. 서울:문예출판사

3. 사전

- 삼호뮤직편집부. 1989. **클래식 음악 용어 사전**. 서울:삼호뮤직
- 세광음악출판사 편집국 역. 1986. **음악용어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 세광음악출판사 편. 1991. **음악용어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 세광음악출판사 편. 1993. **음악 대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4. 논문

이은화.2004. **운디네 문학의 계보 연구-푸케의 『운디네』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독어독문학회. 2004

김언영.2006. **Carl Reinecke 의 Flute Sonata Op.167 “Undine” 에 대한
연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신경림.2009. **Carl Reniecke Flute Sonata Op.167 <Undine>에 대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안미연.2007. **라이네케의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Op.167 제 1악장의 분석
연구**.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5. 악보

Carl, Reinecke.Sonata “Undine” Opus 167 for flute and piano
(International Music Company)

Carl, Reinecke.Sonata “Undine” Opus 167 for flute and piano
(Schirmer)

Carl, Reinecke.Sonata “Undine” Opus 167 for flute and piano
(한국음악사)

ABSTRACT

Understanding of
Carl Reinecke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Undine』
for an Ensemble of Piano and Flute

Kim, So Hee
Department of Accompanying
Graduate School of Music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his research is on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Undine*』 by Carl Heinrich Carsten Reinecke, (1824-1910).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Undine*』 was composed in 1885, and it consists of four movements.

This Sonata has a lyrical and simple melodies, and is wonderful ensemble of piano and flute. It is one of Sonata which is still being played by many players.

This research is organized as follows.

The introduction explai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 the body of this paper, the musical background in the 19th

century and the composer's life and music style are examined.

By analyzing the piece, this research looks into musical features of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Undine』*. Especially, this research analyzes musical elements which this Sonata has with the perspective of a piano player, and redefines the musical relationship the piano and flute in this Sonata.

In conclusion,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is Sonata which analyzed through this research are checked again. And the role of piano part in this Sonata are discussed.